

# 국민교육 통해 각인된 '사실' 또는 '상식'에 대한 의심과 탐구



최근 한·일 두 지식인인 임지현(46) 교수와 사카이 나오키(57) 교수의 대담집 《오만과 편견》이 출간되자 국내 언론과 지식계의 반응이 뜨겁다.

‘경계짓기(민족·인종·국가·성·계급)로서의 근대를 넘어서’라는 테마를 다룬 《오만과 편견》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탈근대담론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탈근대 구축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서울과 도쿄, 그리고 뉴욕에서 10여 차례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한·일 두 지성이 벌이는 우정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현재 영국 글래모건 대학교 외래교수 겸 하버드 대학 엔칭연구소 초빙학자로 외유중인 역사학자 임 교수는 특정 인종이나 땅, 언어 등으로 묶는 식의 민족주의를 초월해 공통의 관심사와 보편적 가

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족개념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넬대 아시아연구과 교수이고 다언어 잡지 <흔적Traces> 편집위원인 사카이 나오키 교수는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 연구, 문화와 번역이론, 18~20세기까지의 동아시아 지성사 등의 분야를 주요 연구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강의하고 있는 임지현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실는다.

책이 나온 후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고, 저널의 관심이 날카롭다. 저자로서의 소감을 말해 달라.

한 가지 일을 매듭지었다는 안도감이 먼 저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남는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두 사람 사이의 대담이다 보니, 일이 번거로웠다. 다수의 통역자와 번역자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의 휴머니스트 출판사와 일본의 이와나미 출판사까지 그야말로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기꺼이 이 우정의 공동체에 가담한 모든 벗들에게 감사드린다.

책 제목이 영국의 작가 J.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과 같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과정과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한 영문제목은 ‘Arrogance and Prejudice’, 즉 제국의 ‘오만’과 식민지의 ‘편견’이었다.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와는 다르다.

오스틴의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주인공의 pride를 오만이라고 오해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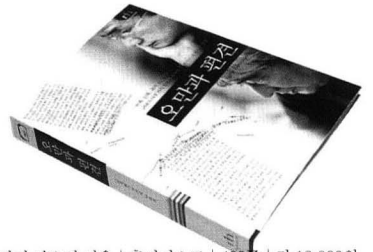
우리의 주인공 제국주의는 그야말로 ‘오만’하다. 제인 오스틴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오만과 편견이 이미 독자들에게 익숙한 대구對句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오해의 생산성에 기댄 측면도 강하다.

이 책의 어떤 편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나?

‘국민의 정부’ ‘국민참여 정부’와 같은 자기규정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 책에서 시도한 ‘국민’이라는 리바이어던 Leviathan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참여’를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랜 기간의 대담을 통해 저자 스스로도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생각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우리 첫 대담이 2001년 10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있었는데, 바로 그 한 달 전에 9·11 테러가 있었다. 내 개인적으로는 테러 그 자체보다 그에 대한 미국사회의 반응이 더 큰 관심사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9·11은 미국독립 혁명기의 이른바 공화주의에 기초했다고 주장되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원초적 민족주의로 전화될 수 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시민적 민족주의’와 한반도에 지배적인 ‘혈통적 민족주의’의 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담이 시작되었고, ‘사카이와의 대담을 통해 그



《오만과 편견》 임지현·사카이 나오키 지음 | 휴머니스트 | 482쪽 | 값 18,000원

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상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9·11 테러가 인민주권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 사카이와의 대담에서는 파시즘 자체가 인민주권에 기초해 있다는 생각을 같이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칼 슈미트의 '주권독재'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의 정부'라는 현 정부의 자기규정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해주는 근거가 아닌가 한다.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없었는가?

참으로 이상적인 대화상대를 만난 덕에 어렵듯한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더 중요하게는 내 안에도 그야말로 근대 국민국가의 헤게모니가 침투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비판이 참으로 집요하고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한 자각 같은 것이랄까...

'일본의 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주의도 미국 헤게모니의 주주(株主)'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중에 한 말을 두고 국내에서 많이 말다

작년 9월 출국한 이후 한국신문은 일체 보지 않고 있다. 한국소식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현지신문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 무어라 현 정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단지 역사로서의 제1감은 '국민참여의 정부'라는 자기규정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고, 쫓

불시위 등으로 표출된 반미감정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정면으로 딛고 넘어서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안주하는 반미주의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귀국해서 한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아야 나름대로 감이 잡힐 것 같다.

국내 독자들이 이 책에서 가장 주의 깊게 읽었으면 하는 대목은 무엇인가?

한국을 비롯한 구 식민지 혹은 주변부의 민족주의가 실은 유럽중심주의 혹은 오리엔탈리즘의 한 변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한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의 국민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사실' 또는 '상식'이라고 통념화된 것들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

《민족주의는 반역자다》, 《우리 안의 파시즘》 등 그동안 여러 권의 저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번 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개석상에서든 사석에서든 미국 친구들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민족주의가 한국 민족주의보다 더 원시적이고 원초적이라고 말하곤 했다. 적지 않은 미국친구들이 내 말에 동의를 보냈다.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자랑하는 공화주의적 미덕을 갖춘 '시민적 민족주의'라는 것도 '혈통적 민족주의'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반역자다》에는 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 또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

이 녹아 있지만, 《오만과 편견》에서는 좋은 애국주의와 나쁜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와 닫힌 민족주의, 시민적 민족주의와 인종적 민족주의 등의 구분에 의문을 던지고, 종형으로서의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더 원론적인 불신이 표출된 것 같다.

《오만과 편견》은 그 내용 말고도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기획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출판계의 발전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

보기 힘든 기획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들린다. 그런데 만의 하나라도 이 땅의 출판인들 일부가 일본의 우수 출판사인 이와나미와의 동시출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바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아시아판 오리엔탈리즘의 잔재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미국 혹은 유럽의 출판동향을 모델로 삼거나 배타적으로 타자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전유(專有)하고 새로운 사유의 틀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적 돌파력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학계와 출판계, 저널리즘이 같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e-mail 인터뷰 신동섭 기자 · 사진제공 휴머니스트

